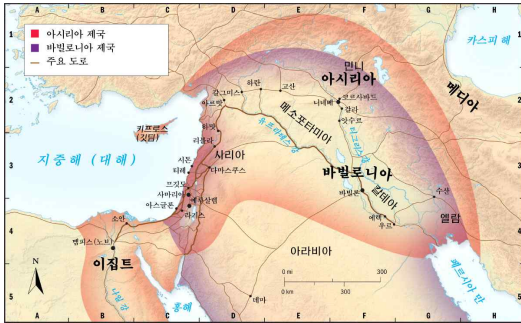


약속하시는 하나님

이사야 48:6-11



이사야 말씀을 통해, 하나님은 자기 _____ 외에 다른 _____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.

이사야 말씀을 통해,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?

이사야 말씀을 통해,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까?

하나님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신 _____은 없다.

이사야 46장 5절

5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,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? 나를 누구와 _____ '서로 같다' 하겠느냐?

이사야 46장 8절-9절

8 너희 죄인들아, 이것을 기억하여라.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.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, 이 일을 _____ 깊이 간직하여라.

9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. 나는 하나님이다. 나 밖에 다른 _____은 없다. 나는 하나님이다. 나와 같은 이는 없다.

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

슬퍼하시고, 마음 아파하시며,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.

하나님은 어떤 분

이사야 46장 3절-4절

3 "야곱의 집안아,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, 내 말을 들어라.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_____ 다녔고,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_____ 다녔다.

4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_____ 다니고,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_____ 다니겠다.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,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, 안고 다니겠고, 또 _____ 주겠다.

약속하시는 하나님

이사야 46장 10절

10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, 내가, 이미 오래 전에,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. '나의 뜻이 _____ 성취될 것이며,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_____ 이룬다'

이사야 46장 6절

6 네가 이미 들었으니, 이 모든 것을 똑똑히 _____. 네가 인정하지 않겠느냐? 이제 내가 곧 일어날 _____을 네게 알려 줄 터이니, 이것은 내가 네게 알려 주지 않은 _____일이다.

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곧 일어날 은밀한 새 일은 무엇입니까?

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숨겨놓고 계신 엄밀하게 하신 것, 곧 새 일은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.

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바벨론은 신흥대국으로 발돋움 하던 시기였고, 바벨론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을 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.

바벨론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들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삼을 만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.

이러한 바벨론의 손에 의해 압제 당하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는 그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그들이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신비한 일이었고,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새 일이었던 것입니다.

여러분!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.

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 상반절은 “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”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나 그 일은 늘 우리의 경험과 상식과 이해를 요청하지 않으십니다.

비록 우리에게 은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여서라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.

[결론]

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미리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어디로 가야 할지, 무엇을 해야 할지,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지. 늘 고민스럽습니다.

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분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.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해 “내 인생의 모든 것을 미리 알려 달라”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“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하겠습니다”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.

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.

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, 어디로 가야할지 다 알 순 없지만 하나님은 우릴 위해 반드시 은밀한 일을 행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

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며,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빛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